

# 지상파뉴스의 품질과 시청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Quality and Ratings in the Performances of TV News Programs

김유정\*, 오현경\*\*  
문화방송\*,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Eujong Kim(eujong.kim@gmail.com)\*, Hyun-kyung Oh(pasacaglia@gmail.com)\*\*

### 요약

미디어 기술의 진화는 지상파방송뉴스프로그램도 다양한 매체 및 플랫폼의 뉴스콘텐츠와 경쟁해야 할 상황에 노출시키고 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은 지상파뉴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시청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돌파구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뉴스가 사회의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두 가지 요건, 즉 뉴스의 품질과 시청자의 선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지상파 종합뉴스의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개별 기사 단위의 시청률 데이터를 수집하여 양자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뉴스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심층성의 하위 요인과 시청률의 관계성도 검토하였다.

■ 중심어 : | 뉴스 | 품질 | 공정성 | 심층성 | 시청률 | 상관관계 분석 |

### Abstract

Changes in media technology affect the competitive status of broadcasting networks as news media. The competitive media environment has pushed broadcasting network news programs to find new ways for leveling their qualitative performance up and rating.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ey value, news quality in terms of fairness and in-depthness and news rating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broadcasting network news texts and individual news item ratings.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news quality factors and ratings was proved positive.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ngth of news item and rating was proved negative.

■ keyword : | News | Quality | Fairness | In-depthness | Ratings | TV Program Performance |

## I. 문제제기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의 사회와 현실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제공하는 언론 매체의 존재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립과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다원적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있어 핵심적이

며 이는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 확대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다수 언론매체의 존재 못지않게 최근에는 개별 언론매체에서 제공하는 뉴스·시사정보의 질(質)도 중요시되고 있다[1]. 정보의 범람 속에서 물리적 접근성, 정보 제시 및 전달의 편의성, 그리고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매체나 정보 선택의 기준은 보다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

\* 이 논문은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접수일자 : 2019년 11월 01일  
수정일자 : 2019년 12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2월 17일  
교신저자 : 김유정, e-mail : eujong.kim@gmail.com

으로 이용자들의 정보 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뉴스매체나 채널이 양적으로 늘었어도 실제 민주주의 사회 유지에 필요한 정보는 편재되어 있으며 다양성과 공정성이라는 저널리즘의 근본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2], 더 큰 문제는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정보나 의견 외에 다른 목소리나 이견에 노출될 기회가 점차 줄고 있다는 데 있다[3]. 네트워크 기반의 뉴미디어가 시민들간의 연결성 확대를 통해 대중매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개별 이슈를 공적 이슈로 전환시키며 개별 시민의 공중으로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른바 다원적 공론장을 실현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네트워크 기반 뉴미디어는 강화된 선택성을 통해 참여자의 동질성이 강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4]. 계층 단위의 이해와 경험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말할 자유와 가능성은 커졌지만 이질적 의견과 주장을 '듣지 않고' 회피할 선택의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전통적 언론매체 특히 지상파방송 뉴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지상파 뉴스는 전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있으며 여러 부침에도 불구하고 공명성을 기본 목표로 하는 매체로서 사회적 의미와 가치는 여전히 막중하다. 주요 사회적 의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필수적이며, 이는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에 노출되고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선택성이 강화될수록 이용자가 그 흐름을 통제하기 어려운 'TV방송' 뉴스, 특히 지상파방송 뉴스가 갖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 하겠다.

파편화되고 극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지상파방송 뉴스가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상파방송 뉴스가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해 다양하고 이질적 의견을 담은 보도를 하고, 이러한 뉴스시사정보가 실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전자가 지상파방송 뉴스가 공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슈에 대해 공정하고 심층적이며, 균형감 있는, 높은 품질의 보도를 제공하는가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이러한 뉴스들이 실제 시청자에게 선택되어 전달되는가의 문제이다. 지상파방송 뉴스가 이른바 '보편적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심층성, 균형성 등으로 무장된, 높은 수준의 '품질'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뉴스들이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뉴스 내용과 시청자의 선택이야말로 사회의 다양한 시민과 계층, 그리고 집단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과 관점에 노출되어 공적 이슈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의 기본 요건이라 할 것이다.

뉴스 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장르의 프로그램보다 프로그램의 정확성, 공정성, 심층성에 따라 시청자의 신뢰도가 달라진다[5]. 뉴스가 얼마나 정확하고 공정하며 심층적으로 주요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 뉴스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는 달라진다는 전제 속에 지상파방송뉴스의 질적 수준과 가치에 대한 측정 항목과 검토 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뉴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진단하는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6].

그렇다면 뉴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은 시청률이라는 시청 성과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과 질적 수준이 상호 정(+)적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이중위험현상(double jeopardy phenomenon)에 대한 연구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7]. 이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의 양적 성과는 질적 성과에 연동한다. 브랜드 제품의 인지도와 소비자의 선호도 간 관계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이 현상을 방송 영역에 적용하면 시청률(양적 성과)이 높은 프로그램은 그만큼 프로그램의 질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청률은 이처럼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과 선택을 보여주는 경쟁력 지표이며, 동시에 지상파방송뉴스를 보편적 공론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사회적 이슈가 논의되는 공적 공간의 활성화 수준을 가늠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으면, 해당 뉴스보도는 사회적 공명을 일으켜 공론화되기 어렵다. 지상파방송뉴스의 시청률이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의 목표를 넘어 사회적 의미까지 담보하는 이유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지상파방송뉴스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지상파방송뉴스의 질적 수준과 시청자의 선택의 관계성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지상파방송뉴스의 내용과 질적 수준을 내용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이 결과가 시청자의 선택을 의미하는 시청률과 어떤 관계성을 보이는가를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시청률은 개별 뉴스 아 이템(꼭지) 단위의 시청률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계성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다.

## II. 이론적 논의

### 1. 방송 뉴스의 질 평가의 차원과 방법

프로그램의 질은 시청률을 보완하는 대안적 시청지 표 개발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의 '질'은 일정한 사회적 가치와 규범성을 반영하며 이용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는 개념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개념 이자 대상이다. 프로그램의 '질'을 가치 있다고 평가받 는 어떤 '기준'과의 관계로 설명하거나[8], 사회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요구하는 가치와 목표 속에서 '질'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계속된 것도 그 때문이다[9].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시청 자의 신뢰도를 얻는 것이 중요한 뉴스 장르에서 좋은 뉴스 프로그램 또는 뉴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공론장 형성에 있어서 대중매 체의 매개성이 갖는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고려 할 때, 지상파뉴스의 질 또한 미디어와 사회 환경의 관 계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기술의 진화는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매 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 에 노출될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10]. 즉, 다양 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안적 공론장의 등장을 촉 발했지만[11], 선택성의 확장은 결과적으로 관심과 의 견의 동질성 유지를 강화시킴으로써 서로 이질적인 의 견과 주장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12].

그런 의미에서 전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지상 파방송뉴스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중요 이슈들을 빼놓 지 않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는다[13]. 이는 뉴스 속 에 구현되어야 하며 뉴스 내용의 질은 이러한 맥락 속 에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정성과 심층성을 지상파방송뉴스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근본 가치이자 기준으로 삼을 필 요가 있다고 보았다. 언론에 대한 규범적 논의에 많이 등장한 여러 이념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4][15],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다원적이고, 다중적이며 때로는 갈등하는 가치를 포괄하는 원칙이자 가치라 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한국 언론에 대한 가장 큰 요구 는 역사적으로 공정성이었고 언론에 대한 불신도 바로 공정성 흠결이라는 지적이 많았다[16][17].

한편, 심층성은 인터넷 기반 뉴스매체에서 생산되는 단편적, 속보성 정보가 가득한 시대에 무엇보다 강조되 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18]. 지상파방송뉴스가 가져야 할 가치 중 하나는 사회의 중요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 에서 다층적이며 심도 있게 접근함으로써 시청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시청자의 신뢰가 중요하고 사회의 주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지상파 방송뉴스에 담겨야 할 핵심 가치를 공정성과 심층성으 로 본다면 뉴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바로 이 개념들에서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TV시청이 기본 적으로 저관여 행위라고는 하나,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 히고 보다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 방향으로 미디어 환경 이 변화하면서 시청자들은 저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찾아 자신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시간과 관심)을 투여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뉴스의 질 은 공정성과 심층성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이 것은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 공정성과 심층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검토하였다.

#### 1.1 공정성

공정성은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문화적 경험 속에서 배태되어 형성되는 개념적 구성물이다. 따라서 이 개념 이 과연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인 것인지, 공정성을 논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다원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공정성 조건은 무엇인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공정성의 규칙 혹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합의로 충분하지, 공정성은 과연 언론인, 언론학자, 이용자 중 누구의 관점에서 판단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논박은 불가피했다[19]. 그런 점에서

공정성이 몇 개의 하위 차원으로 완성되는 단일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개념들과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어야만 한다는 주장[20]은 여전히 타당하고 유효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웅과 김경모는 뉴스의 공정성 개념의 구성요소를 다양성, 담론적 공정성(내포적 공정성), 약자 배려(외연적 공정성)으로 보았다[21]. 여기서 다양성은 관점의 다양성과 정보원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정보원에 근거한 뉴스가 더 공정한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2]. 담론적 공정성은 다양한 입장을 뉴스에 담을 때 여러 관점이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비지배적 입장의 반영이 최소한도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외연적 공정성을 추가하였다.

지상파방송뉴스의 공정성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입장과 관점이 담겨야 하며, 이들의 목소리는 정당하고 균형성 있게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목소리가 뉴스 텍스트에 반영될 때 다양한 관점이 담길 가능성은 높아지며[23] 이는 정보의 정확성 판단에 있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적인 분량을 넘어 대립되는 주장의 핵심 내용이 충분히, 그리고 균형성 있게 다루어지는가를 의미하는 균형성은 공정성의 하위 요소이자, 동시에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이는 동시에 이용자 입장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공정성의 하위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뉴스정보채널의 존재와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계층, 이해, 성향이나 사회정치적 입장 등에 따라 동조하는 기사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은 사회의 공적 이슈와 현안에 대한 공통의 이해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상파방송뉴스에서 공정성 확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회적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1.2 심층성

심층성도 오랜 기간 동안 뉴스의 질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으나 미디어환경의 변화는 심층성에 대한 재인식과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함께 다양한 뉴스 매체와 채널이 등장하면서 정보와 기사는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종합적

으로 이해하고 조망하며 서로 다른 의견의 노출을 통해 새로운 생각을 청하도록 하는 기사는 상대적으로 찾기 어려워진 현실 때문이다. 온라인 언론매체에서 시작된 속보 경쟁에 전통적 언론매체들도 뛰어들어 지 오래이며 숨 가쁘게 이어지는 보도 경쟁과 대중의 취향이라는 구실 속에 기사 내용의 깊이와 분석 수준에 대한 고민은 늘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온라인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게시글의 수준을 넘지 않는 지상파뉴스 보도 기사에 대한 염증과 일련의 국정농단 사건 보도를 거치면서 뉴스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뉴스의 심층성은 TV방송뉴스 특히 지상파방송뉴스의 위기의 타개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주류 언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상파방송 내부에서는 공정성 못지않게 심층적 뉴스 제공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방송뉴스의 도식 탈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심층성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뉴스가 심층적인 뉴스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언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뉴스의 심층성을 다양성과 객관성 등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해석하든[24], 뉴스의 정확성, 불편부당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뉴스의 심층성을 이해하든[25] 심층적 뉴스의 지향은 결국 사회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권유하여'[26] 공동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동안 뉴스의 심층성은 사안의 원인이나 맥락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었는지, 복합적 관점에서의 보도였는지, 비판과 평가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기획취재의 보도 양식이었는지[27] 등으로 평가되었다. 이준웅과 황유리의 연구[28]에서는, 심층성을 구성하는 일련의 구성요소의 포함 여부로 심층성을 판단한 연구들과 달리, 뉴스 기사의 전체 구성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이른바 한국형 방송뉴스의 일정한 내용적, 형식적 도식에 이어지는 이른바 한국형 TV방송뉴스의 틀과의 대비를 통해 사안에 대한 현상 기술 수준의 보도인지, 원인과 다양한 반응, 파급효과, 또는 연관된 사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담긴 구성인지를 통해 심층성 개념을 계량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와 분석틀을 차용한 연구들에 따르면 국내 TV방송뉴스 대부분은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는 수준의 보도에 여전히 치중된 상태였다.

## 2. 뉴스 기사의 품질과 시청률의 관계성

뉴스의 질적 수준과 시청률의 관계를 탐색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몇몇 선행 연구들은 뉴스의 품질과 시청 성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상당의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처음 시작된 이중위험현상 연구가 방송프로그램 영역에 적용되면서 그간 방송프로그램의 양적 성과와 질적 성과는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암묵적 전제나 인식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바와이즈, 에른버그, 곤하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품질도 좋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즉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질적인 평가 수준도 높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김은미, 이준웅, 심미선이 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평가 결과와 시청률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장르별 이중위험 현상의 존재 여부와 특징을 검토하였다[30]. 분석결과 교양프로그램에서만 이중위험현상이 확인되었을 뿐, 오락과 뉴스에서는 이중위험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뉴스프로그램에서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인지적 차원의 평가는 시청률과 정(+)적 관계성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연구가 진행된 당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과 질적으로 수준이 높은 프로그램은 별개라는 시청자 인식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함축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뉴스의 질 판단의 근거와 자료인 내용과 시청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로는 미국 언론발전연구소(The Project for Excellence Journalism)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용자의 뉴스 선택 기준이 결코 간결한 정보 수준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수준 높은 저널리즘 가치를 담은 뉴스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낮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뉴스 아이탬의 중요도, 기획 수준, 균형성, 지역 연관성 등으로 측정된 뉴스의 질적 수준이 시청률 예측에 유의미했기 때문이다[31]. 벨트와 저스트도 뉴스에서 공적 사안이나 공공의 내용을 다루고 기획성이 강할수록, 그리고 뉴스 내용에서 관점의 균형성이 잡혀있을 때 시청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32].

국내에서는 한혜경의 연구[33]가 대표적이다. 지역 뉴스프로그램의 질적 수준과 시청률 및 점유율의 관계를 분석한 이 연구에서는 5개 지역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결과를 프로그램 시청률과 연결시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뉴스에서 공공 정책이나 이슈, 기획보도의 비중은 높았으나 보도의 균형성은 떨어졌고 중요성, 기획성, 균형성, 연관성 등의 질적 요인은 시청률 예측의 유의미한 요인이었다.

지상파방송뉴스를 포괄적 공론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시청률은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행동(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이슈가 논의되는 공적 공간의 활성화 수준을 가늠케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 하여도 사람들이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으면, 해당 뉴스보도는 사회적 공명을 일으켜 공론화되기 어렵다. 지상파방송뉴스의 시청률이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의 목표를 넘어 사회적 의미까지 담보하는 이유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의 공론장으로서 지상파방송뉴스가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지상파방송뉴스의 질적 수준과 시청률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파방송뉴스 아이탬별(꼭지)로 내용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뉴스 꼭지 시청률의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그동안 뉴스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와 시청률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뉴스 프로그램 전체의 시청률이나 점유율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단위의 시청률은 기사(아이탬) 단위의 질적 특성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제 뉴스 기사의 질적 특성의 변화와 기사 단위의 시청률 변화의 관계성을 추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 뉴스 기사 단위의 질적인 수준과 시청률의 관계를 기사 단위의 시청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파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개별 기사의 공정성과 심층성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둘째, 지상파 3사 종합뉴스프로그램의 개별 기사의 질적 수준과 시청률은 어떤 관계성을 보이는가?

### III. 연구방법

####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사의 저녁 메인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뉴스 기사의 질이 시청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상파 3사 저녁 종합뉴스프로그램인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SBS 8 뉴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는 지상파 3사 저녁 종합뉴스프로그램에서 방송된 뉴스 기사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2018년 3월 1일부터 4월 25일(8주)까지 이들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된 뉴스 기사 전수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내용분석 코딩 작업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2인이 담당했다. 코딩 작업은 2018년 5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두 명의 코더들은 분석 대상 날짜에 해당하는 방송 뉴스를 각 방송사 홈페이지의 '다시보기'를 통해 기사 스크립트와 VOD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코딩 작업은 코드북 숙지 후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적정 수준의 코더 간 신뢰도를 확보한 뒤 본 코딩에 들어가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코드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보도관행이 나타나면 '기타'로 코딩 후 메모를 남겨 연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 검증은 홀스터의 신뢰도 계수를 사용했으며(Wimmer & Dominick, 1995) 사전 코딩한 데이터의 신뢰도는 0.78 수준이었다.

표 1. 지상파 3사 저녁종합뉴스의 분석 기사 수

구분	KBS	MBC	SBS	계/평균
총 아이템수	1,065	1,091	1,219	3,375
주중(평균)	21	22	23	22
주말(평균)	13	14	18	15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개별 기사의 시청률이다. 시청률은 특정 지역의 전체 가구 중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연구에서는 A.G.닐슨사의 뉴스 기사(꼭지)별 가구시청률자료(수도권 가구 기준)를 활용하였다.

####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지상파뉴스 기사의 품질을 공정성과 심층성이라는 하위요소로 구체화하였다.

먼저 공정성은 취재원의 다양성과 보도 관점의 다양성이라는 2가지 하위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정보원의 다양성은 하나의 기사에 담긴 취재원의 수와 인터뷰 수로 정의하였다. 보도 관점의 다양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방송뉴스 기사별로 등장인물의 관점을 계량화하였다. 즉, 호와 퀴(34)의 항목 반응 테스트(item response test) 기법을 응용하여 소개 멘트를 담당하는 앵커, 기자, 취재원 등 등장인물을 개별 단위로 하여 사안에 대한 태도와 논조의 강도를 5점 척도(①매우 부정적 ~ ⑤매우 긍정적)로 측정하였고, 개별 기사에 서로 다른 태도와 관점이 얼마나 포함되었는가를 의미하는 기사 단위 보도 관점의 다양성은 이렇게 측정된 결과값의 표준편차로 보았다.

기사의 심층성은 기사별 방송 길이, 사안 관련성, 그리고 결론의 심층성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먼저 기사의 방송 길이는 시청률 정보에 기재된 뉴스 기사별 시작시점과 종료시점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초 단위로 집계되었다. 사안 관련성은 뉴스 아이템에 등장하는 취재원들이 해당 이슈에 얼마나 관련성을 갖는가로 측정하였다. 즉 해당 이슈에 대해 취재원들이 얼마나 적극적(소극적), 긍정적(부정적) 관련성을 지니는가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후 측정값을 관여도에 따라 리코딩하였는데, 매우 부정이나 매우 긍정의 입장 또는 해당 이슈의 전문적 식견을 드러낼 경우 사안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다. 반면 다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일 경우 중간 수준의 이슈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관여도가 크지 않거나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취재원은 사안 관련성이 낮다고 보았다. 취재원의 사안관련성 평균값은 기사 단위의 최종 사안 관련성 값이 되도록 하였다.

결론의 심층성의 경우 기사 보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①기본 정보 제공 ②실태고발 ③심층정보 제공, 새로운 문제제기, 대안 제시의 순으로 심층성의 수준을 정의하였다.

#### IV. 연구결과

국내 지상파종합뉴스의 공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뉴스 기사의 취재원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활용되는 취재원은 국내 공공기관/단체/전문가(42.0%)였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인/개인 취재원으로 특정 사건의 피해자나 주변 인물과 같은 일반인/개인(23.3%)이었다. 기업/경제단체(11.9%), 정당/정치인(11.8%), 익명/불분명(10.9%), 행정부(9.7%)도 상대적으로 취재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경향성은 KBS, MBC, SBS 각 채널별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뉴스기사의 심층성 중 먼저 기사별의 방송 길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상파 저녁종합뉴스에서 방송된 뉴스 기사의 평균 길이는 115.9초로 나타났다. 기사별 방송시간이 가장 긴 채널은 MBC로 기사 평균 길이는 122.3초, 즉 2분을 약간 웃돌았다. 그 다음은 SBS로 뉴스아이템별 평균 길이는 평균 115.4초였고 KBS는 평균 110초로 나타났다.

결론의 심층성에 대한 분석결과, 국내 지상파 종합뉴스에서는 기본 정보 제공 유형이 가장 많았다(64.3%). 실태 고발형은 23.3%, 심층정보 제공 9%, 새로운 문제제기 0.7%, 대안 제시는 2.7% 순이었다.

표 2. 지상파 3사의 뉴스 취재원 분포(복수코딩)

구분	KBS	MBC	SBS	전체	
정부/행정기관	대통령	36 (3.4%)	31 (2.8%)	28 (2.3%)	95 (2.8%)
	청와대	95 (8.9%)	85 (7.8%)	85 (7.0%)	265 (7.9%)
	행정부	109 (10.2%)	97 (8.9%)	122 (10.0%)	328 (9.7%)
	정당/정치인	119 (11.2%)	136 (12.5%)	144 (11.8%)	399 (11.8%)
	외국정부/정치인	92 (8.6%)	63 (5.8%)	97 (8.0%)	252 (7.5%)
	북한	32 (3.0%)	38 (3.5%)	31 (2.5%)	101 (3.0%)
공공기관/단체/전문가	국내	460 (43.2%)	437 (40.1%)	520 (42.7%)	1,417 (42.0%)
	해외	36 (3.4%)	21 (1.9%)	37 (3.0%)	94 (2.8%)
민간/기업	시민단체/사회단체	98 (9.2%)	112 (10.3%)	108 (8.9%)	318 (9.4%)
	기업/경제단체	124 (11.6%)	122 (11.2%)	156 (12.8%)	402 (11.9%)
일반인/개인	248 (23.3%)	252 (23.1%)	288 (23.6%)	788 (23.3%)	
타매체	41 (3.8%)	39 (3.6%)	43 (3.5%)	123 (3.6%)	
익명/불분명	96 (9.0%)	143 (13.1%)	126 (10.3%)	365 (10.9%)	
계	1,065	1,091	1,219	3,375	

표 3. 지상파 종합뉴스의 기사 길이(단위: 초)

구분	KBS	MBC	SBS	평균
평균 길이	110	122.3	115.4	115.9
최소값	17	14	17	
최대값	508	528	440	

표 4. 채널별 뉴스 기사 결론의 심층성

유형	KBS	MBC	SBS	전체
실태 고발	209 (20.2%)	286 (26.9%)	266 (22.8%)	761 (23.3%)
기본 정보 제공	707 (69.3%)	657 (61.9%)	737 (63.0%)	2101 (64.3%)
심층정보 제공	90 (8.7%)	89 (8.4%)	115 (9.8%)	294 (9.0%)
새로운 문제제기	3 (0.3%)	8 (0.8%)	11 (0.9%)	22 (0.7%)
대안 제시	26 (2.5%)	22 (2.1%)	40 (3.4%)	88 (2.7%)
계	1,035	1,062	1,169	

뉴스 기사의 공정성과 심층성을 보여주는 주요 변인과 종속변인인 기사 단위의 시청률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개별 기사의 시청률은 취재원수, 인터뷰 수, 그리고 관점의 다양성 변인과 모두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 관련성은 취재원 수, 인터뷰 수, 관점의 다양성 변인과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송 길이나 결론의 심층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성을 보였다. 결론의 심층성은 인터뷰 수와는 부(-)적 관계에 있으나 관점의 다양성과는 정(+)적 관계성을 보였고, 방송 길이나 사안 관련성 등 심층성의 다른 하위 항목과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었다.

표 7. 주요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1)시청률	1						
(2)취재원수	.075**	1					
(3)인터뷰 수	.066**	.436**	1				
(4)관점의 다양성	.089**	.029	.540**	1			
(5)방송시간	-.113**	.079**	.179**	.029	1		
(6)사안 관련성	.013	-.036*	-.142**	-.345**	.066**	1	
(7)결론의 심층성	.078**	-.216**	.032	.287**	.146**	.153**	1

주. \* p < .05, \*\* p < .01

##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국내 지상파방송 저녁종합뉴스를 대상으로 뉴스 품질을 검토하고 이것이 실제 양적 시청성과인 기사별 시청률과 어떤 관계성을 보이는가를 검토하였다. 지상파방송뉴스가 여러 비판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도 사실이지만, 여전히 공적 이슈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함께 접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적 공간에서의 이야기와 이에 반영된 사회적 현실은 다양한 정보에 기초한 공정성이 담보된 기사로, 그리고 이용자 개인, 공동체, 사회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녀야 할 것이며 다른 어떤 뉴스 정보 매체보다 깊이 있고 밀도 있는 텍스트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선택권의 강화는 뉴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가 시청자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다면 뉴스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단순히 규범적, 당위적 목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의 시장 성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이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연구배경이었다.

먼저 국내 지상파 종합뉴스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선행연구결과에 비할 때, 회당 뉴스 기사 수는 전반적으로 늘고 뉴스 아이템의 평균 방송시간(길이)도 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뉴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고 이를 계기로 종편 채널과 보도 전문채널이 약진하면서 지상파방송 뉴스의 오랜 형식적 도식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뉴스의 공정성 차원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취재원은 국내 공공기관/단체/전문가와 일반인/개인이었는데, 이는 '찾아낸' 취재원보다 '손 쉽게 주어지는' 취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음을 보여준다. 현재 지상파 뉴스기사의 심층성 수준을 보여주는 결론의 심층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기본 정보 제공에 치중한 뉴스 기사가 전체 분석대상 기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편성채널 뉴스의 등장과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뉴스매체의 등장은 지상파방송 뉴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새로운 고민을 요구하게 되었

고 지상파 뉴스의 지향점으로 논의되는 공정하고 깊이 있는 뉴스가 실제 시청률이라는 경쟁력 지표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공정성과 심층성 차원의 변화가 양적 시청성과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뉴스 기사 단위의 질적 수준과 시청률 변인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별 기사의 시청률은 취재원 수, 인터뷰 수, 그리고 관점의 다양성 변인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뉴스 기사의 방송 길이가 시청률과는 통계적으로 부(-)적 관계성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심층 뉴스 = 긴 뉴스'이며 '긴 뉴스 = 높은 시청률'이라는 제작 현장의 인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저녁종합뉴스에서 뉴스 아이템 길이가 길어지면 시청률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사안관련성을 제외한 공정성과 심층성의 하위 차원 변인은 모두 시청률과 정적 관계성을 보였다. 이 두 결과로 미루어볼 때 국내 시청자들은 지상파저녁종합뉴스가 보다 심층적이고 공정한 기사로 구성되길 바라면서도 그 내용은 보다 압축해서 전달되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분석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공정성의 하위차원으로 정의된 취재원 수, 인터뷰 수, 관점의 다양성 변인과 심층성의 하위 차원인 방송 길이, 사안 관련성, 결론의 심층성의 관계가 서로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다양하게 뉴스에 담아내며 이것의 균형성을 유지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의식이 보도 내용의 '심층성' 목표로 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방송시간의 제약 속에서 공정성 차원에서 취재원 수를 늘리는 것이 내용의 심층성(결론의 심층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한 기사에 너무 많은 인터뷰가 담길 경우 사안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있는 보도를 의미하는 사안 관련성을 높이는 데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관점의 다양성과 사안 관련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로 항상 거론되는 공정성 문제가 심층성이라는 지상파방송뉴스에서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상파방송뉴스가 자신들에게 요청되는 중요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낼 것인가도 중요한 질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부른 해석이 갖는 위험성이 있으나, 이른바 한국형 방송뉴스의 내용적, 형식적 도식의 탈피가 시도되면서 지상파방송뉴스의 공정성과 심층성에 대한 제작진의 해석과 시청자의 이해가 아직 완벽하게 정립되지도, 일치하지도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청자 인식 속에서도 심층적 보도가 공정성 차원에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계속된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특정 이슈에 대한 심층적 보도가 자칫 공정성의 허위 요소인 다양성과 균형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시사한다. 공정성과 심층성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향후 후속연구에서 계속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 기술의 진화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병목 현상이 해소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동시에 더 이상 이질적 의견이나 주장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을 필요 없는 상황과 환경이 지속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갈등 속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공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의 역할을 오히려 새롭게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대의 보편적 공론장으로서 지상파방송뉴스의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즉, 지상파방송뉴스는 과연 공론장으로 기능할만한 보도 내용의 질적 수준을 갖추고 있는가를 공정성과 심층성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질적 수준을 갖춘 뉴스가 시청자의 선택이라는 행동과 정적 관계성을 갖는가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지상파방송 뉴스의 질적 요소 중 어떤 부분이 양적 시청성과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보고서*, 서울, 2015.  
 [2] 손석춘, “저널리즘 위기의 실체와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6호, pp.42-77, 2006.

[3] 최윤정, 이종혁, “인터넷 토론에서 이견(異見) 노출이 정치적 관용에 이르는 경로 분석 : 의견 조정과 의견 공고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6권, 제2호, pp.301-330, 2012.  
 [4] 김영주, 정재민, *소셜 뉴스 유통 플랫폼: SNS와 뉴스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5] 정용준, “JTBC와 미디어 공론장, 가능성과 한계 모색,”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4호, pp.205-234, 2017.  
 [6] 한수연, 윤석민,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한국방송학보*, 제30권, 제1호, pp.169-210, 2016.  
 [7] T. P. Barwise, A. S. C. Ehrenberg, and G. J. Goodhardt, “Audience appreciation and audience size,” *Journal of the market research Society*, Vol.21, No.4, pp.269-289, 1979.  
 [8] K. E. Rosengren, M. Carlsson, and Y. Tägerud, “Quality in programming: Views from the North,” In S. Ishikawa (Ed.), *Quality assessment of television*, University of Luton Press (Bedfordshire, UK), pp.3-48, 1996.  
 [9] 김유정, 심미선, “방송 프로그램 품질평가 방식에 대한 재고찰 : 품질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30권, 제5호, pp.81-116, 2016.  
 [10] C. R. Sunstein, *Infotopia: How Many Minds Produce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Ney York), 2006.  
 [11] J. Habermas, *Faktizität und geltung: Beiträge zur diskurstheorie der rechts und der demokratischen rechtsstaats*, 한상진, 박영도 공역, *사실성과 타당성 : 담론적 법이론과 민주주의적 법치국가 이론*, 나남, 2002.  
 [12] 김영주, 정재민, *소셜 뉴스 유통 플랫폼: SNS와 뉴스 소비*, 한국언론진흥재단, 2014.  
 [13] 조항제, “공영방송의 미래적 모색 : 공론장론과의 공진화,” *언론과학연구*, 제15권, 제4호, pp.405-446, 2015.  
 [14] 김세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신뢰: ‘옳은’ 언론과 ‘좋은’ 언론에 대한 이론적 모색,” *한국언론학보*, 제50권, 제5호, pp.55-78, 2006.  
 [15] 이준웅, 김경모,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제67호, pp.9-44, 2008.

[18] 오해정, 최지향, “한국 공영방송 TV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에 따른 심층성 분석 : KBS <9시뉴스>와 BBC <10시뉴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63권, 제5호, pp.152-189, 2019.

[19] 최민재, 김재영, “포털의 17대 대선 관련 뉴스서비스 공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8권, 제4호, pp.667-701, 2008.

[20] 유종원, “한국에서의 공정보도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3권, pp.137-164, 1995.

[21] 이준웅, 김경모,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제67호, pp.9-44, 2008.

[22] R. Entman, “Newspaper competition and first amendment ideals: Does monopoly matter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35, No.3, pp.147-165, 1985.

[23] 이준웅, 김경모,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제67호, pp.9-44, 2008.

[24] 박재영, 이완수, *뉴스평가지수의 개발과 적용*,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25] 박성호, 윤영민, “방송 법조뉴스의 품질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30권, 제4호, pp.83-120, 2016.

[26] 이준웅, 김경모,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제67호, pp.9-44, 2008.

[27] 이민용, “좋은 뉴스의 으뜸가는 조건으로서의 진실보도,” *언론과 사회*, 제10권, 제3호, pp.9-51, 2002.

[28] 이준웅, 최영재, “한국 신문 위기의 원인: 뉴스 매체의 기능적 대체, 저가치 제공, 공정성 위기,”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5호, pp.5-35, 2005.

[29] T. P. Barwise, A. S. C. Ehrenberg, and G. J. Goodhardt, “Audience appreciation and audience size,” *Journal of the market research Society*, Vol.21, No.4, pp.269-289, 1979.

[30] 김은미, 이준웅, 심미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품질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8권, 제4호, pp.323-350, 2004.

[31] Pew Research Center,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 2005.

[32] T. L. Belt and M. R. Just, “The local news story: Is quality a choice?,” *Political Communication*, Vol.25, No.2, pp.194-215, 2008.

[33] 한혜경, “지역 TV뉴스의 질적 수준이 시청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학연구, 제17권,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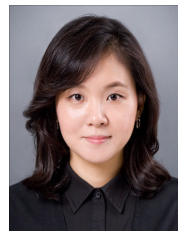
1호, pp.329-363, 2013.

[34] D. E. Ho1 and K. M. Quinn, “Measuring explicit political positions of media,” *Quarterly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 No.4, pp.353-377, 2008.

저 자 소 개

김 유 정(Eujung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학사)
- 1996년 2월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석사)
- 2013년 8월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언론학 박사)
- 1996년 3월 ~ 1999년 4월 :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 2015년 8월 ~ 현재 : MBC 전문연구위원
- <관심분야> : 미디어산업정책, 도시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용자 연구

오 현 경(Hyun-kyung Oh)

정회원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학사)
- 2007년 8월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석사)
- 2010년 5월 : Fordham University (Communication & Media Studies 석사)

- 2016년 5월 : George Mason University (Communication 박사)

<관심분야> : 정치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 수용자 연구